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공천과 사천

정당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식으로 추천하는 것을 공천(公薦)이라고 한다.

제율이 없어서 여러번 낙방하는 유생들이 있었다. 이런 유생들을 같은 성균관 대학생들이 추천하는 것이 공천이었다.

문관의 장관인 대제학을 뽑을 때는 다시 권점을 실시했다. 이때는 전임 대제학들이 모두 참여해서 권점을 행했는데 이를 모여서 추천한다는 뜻에서 회천(會薦)이라고 했다.

공천은 크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천거해 첫 공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과 이미 공직에 진출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승진에도 공천이 적용되었는데,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로웠다. 일정한 권점(權點)을 획득해야 하는데, 여러 관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추천 대상자들의 이름 위에 ○표를 하는 것이 권점이었다.

선조 24년(1591) 이덕형(李德馨)이 31세의 나이로 대제학에 초탁(超擢) 손서를 뛰어 넘어 발탁됨)되었는데 인망이 높아서 권점을 통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은 성균관 명륜당의 동쪽에 있는 동재(東齋)나 서쪽에 있던 서재(西齋)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했는데 아침·저녁 식사 때마다 식당에 비치된 명부인 도기(到記)에 서명해서 출석을 알렸다.

승진이 가장 관직에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천 받기가 쉽지 않았다.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은 성균관 명륜당의 동쪽에 있는 동재(東齋)나 서쪽에 있던 서재(西齋)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했는데 아침·저녁 식사 때마다 식당에 비치된 명부인 도기(到記)에 서명해서 출석을 알렸다.

이때 공론에 의하지 않고 사익(私益)에 따라 추천하는 것이 사천(私薦)인데 학식과 행실이 없는데도 사천했을 경우 추천하는 사람이나 추천 받은 사람 모두 공론(公論)에 저촉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학문도 뛰어나고 행실도 뛰어나지만 과거 급

조선이 그나마 500년 유지된 것은 인재 선발과 승진이 투명하고 철저한 공천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박준규 상무365한방병원 한의사

봄철 건강관리

化收藏: 봄에는 발생하고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고 장마철에는 변화가 일어나서 가을에는 거두어 들이고 겨울에는 갈무리한다)으로 설명을 한다.

하고 있는 냉이나 썩, 머위, 씀바귀 등은 매우 좋은 봄나물이다.

요즘 들어 긴 겨울의 마지막을 알리는 비가 잦다. 겨울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을 하게 되고 건조함으로 써 생기는 증상과 질병이 더 심해지는 계절이다.

지나치게 정형화된 패턴을 만드는 측면은 있지만 철학에서 나온 동양의학은 수 천 년간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맞는 이론은 살아남고 맞지 않는 이론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생존해왔다.

한약 중에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 처방의 명칭은 '중기(중기)를 보하여 기운을 더한다'라는 의미이다. 중기라 함은 비위의 기운을 말하는데 먹어서 만드는 기운을 말한다.

그와 달리 봄철은 세상의 수분이 증만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동물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식물들은 깊이 숨죽이고 있다가 새싹을 틔우고 급격한 성장을 하는 계절이다.

봄철은 새싹처럼 발생하고 간에 해당하는 계절이다. 새로이 무엇인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계절이다.

겨울 내내 실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진 분들은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느린 속도로 뛰는 운동을 시작해서 근력을 끌어올리면 활력이 올라가게 된다.

계절적으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한다. 더운 계절에는 신체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추운 계절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상된 신체를 회복시키게 된다.

그래서 봄철에는 그 계절에 뻗어나는 기운을 많이 품고 있는 봄나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한다.

기고



박교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

불법 현수막 없는 '건기 좋은 광주'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깨끗한 거리,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특별정비계획까지 마련했다. 그 핵심은 무관용 원칙 준수다.

한 광주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 깨끗한 광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낸 데는 시민의 노력이 가장 큰 힘이 됐다.

현수막은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 효과를 창출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 광고부터 헬스장 홍보, 정당 선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한 정비가 이뤄졌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광주시와 자치구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까지 투입해 왔다.

정당 현수막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 없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고, 이후 정당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설치됐다.

물론 지금의 달라진 풍경을 시민과 광주시, 그리고 5개 구청 등이 함께 만든 것처럼 이를 유지하는 것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社說

계엄군에 면죄부 준 보고서 낸 5·18조사위

4년 동안의 조사에도 핵심 쟁점을 밝혀 내지 못해 '부실 보고서 논란'을 낳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피탈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 지난달 등 5·18 왜곡 세력들이 이용하는 '시위대 선제무장설'을 반박하기 보다 그들의 주장에 여지를 준 꼴이 됐다.

진상조사위는 옛것세 '군·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담 일일 무기고 피습사건'이란 조사결과 보고서 2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2019년 출범할 때만해도 5·18의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지난달 말 4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발표 명령 책임자와 암매장 등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을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입학생 절반도 수용 못하는 혁신도시 유치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이 자녀가 다닐 수 있는 가까운 유치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였다. 부실 보고서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기껏 한다는 것이 조사위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방자랴 내놓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어린이집을 떠날 나이란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진학시키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상태다.

혁신도시 유치원 설립이 포함되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치원 증설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유치원 부족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혁신도시가 안정화하기 위해선 아이들 교육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無等鼓

열 여섯 소녀 이옥선은 1942년 중국으로 끌려갔다. 3년간 위안부 생활을 하며 지옥같은 삶을 견뎌낸 그는 1993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일에 앞장섰다.

혁신도시가 안정화하기 위해선 아이들 교육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인구 감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혁신도시에서 아이들이 다닐 유치원이 부족 주변 도시의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연극 '봉선화'

고(故) 이옥선 할머니의 이야기와 위안부 역사는 고통 출신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 노블 '꽃(창비)'을 통해 되살아났다.

극장으로 되돌아갔다. 광주산(産) 5·18 뮤지컬 '화려한 휴가' 현장이다.

이옥선 할머니처럼 일본을 상대로 40년간 투쟁해 온 또 다른 할머니들이 있다.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다.

최한 이들과 역시 우타고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 본인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5·18을 알리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해 티켓을 판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